

# 학생참여 ·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 도교육청, 기본계획안 마련... 올바른 역사 인식에 초점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건전한 역사관·국가관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한 2019 역사교육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교육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9 역사교육 방향은 크게 체험중심 역사교육 강화 △역사교육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 △역사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쉽고 재미있는 역사교육을 위해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역사교육을 전개한다.

현장체험학습 시 역사현장 체험과 역사체험대회·유적지 및 박물관 답사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정규동아리 편성 시 '역사 동아리' 편성을 권장하고 있다.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학교도 운영한다. 오는 7~8월 진행될 역사체험학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항일 독립운동 지역인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가치 확인과 민족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동학농민혁

명 유적지 답사, 역사 인문학 캠프 등도 추진한다.

역사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역사 관련 연구회 운영, 역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초·중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연수와 함께 교원의 역사교육 연수 기회도 확대된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는 작업도 병행된다. 근영중학교 조은경 수석교사는 오는 28~29일 '2019 대한민국 청소년 독립선언서'를 주제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또 수업에 대해 고민하는 교사들의 진지하고 담담한 대화 모임인 '수업진단 역사분과'에서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

한 공동 수업지도안 마련,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구현해 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초등사회(역사) 보조교재 편찬 및 보급, 중등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내용 보완 및 재보급 등 역사교육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도 강화한다.

초등사회 보조교재의 경우 현직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5~6학년 특성과 발달에 맞는 교재를 발간, 8월말 보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한 역사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학생참여 중심,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이스타투어&유학’이 지난 6일 전주대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 “국제교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 ‘제이스타투어&유학’ 전주대에 발전기금 500만원 기탁

전주 여행사 ‘제이스타투어&유학’이 지난 6일 전주대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제이스타투어&유학은 전주대 출신 김영주 대표가 2007년 전주대 벤처 창업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여행사다. 2011년에는 전북대에 2호점을 개설하고 현재는 전주비전대, 전주교육대학교 등과 MOU를 맺고 있다.

발전기금 전달은 전주대 본관 접견실에서 제이스타투어&유학 김영주 대표와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 국제교류원장 류인평 교수 등 전주대 교직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이스타투어&유학 김영주 대표는 "사회에 진출하니 전주대가 더욱 자랑스러웠고 전주대에서 생활했던 게 행운처럼 느껴진다"며 "학교에서 배운 글로벌 마인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전주대의 국제교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대 양병선 부총장은 "후배들이 선배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주 대표의 전주대 사랑은 2013년에 관광경영학과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리오스 루앙프라방주 교육협력 논의... 인적 교류 방안 등 협의

리오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지역인 루앙프라방(Luang Prabang)주 교육부 청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양지역의 교육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북교육청을 방문한 루앙프라방주 왕벡 우돗툼 교육체육부청장 일행 13명은 정병의 부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들과 교육교류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병의 부교육감은 "전북은 학생과 교직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학생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왕벡 교육부청장은 전북교육 현황을 소개하고 "전북교육이 매우 자유롭고, 교육과정 운영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도 매우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교교육 체계가 튼튼하지 못한 리오스에 전북교육청이 인적교류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문단을 이끈 루앙프라방주 싸이싸먼 지방국회의장도 "리오스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유학하



리오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지역인 루앙프라방주 관계자들이 지난 5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교육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양국간 교육협력의 위한 교류체계가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전북교육청이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교육청 정병의 부교육감은 "두 나라와 양 지역이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정책

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며 "요청하신 내용 중에는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할 분야도 있고, 전북교육청이 담당하는 내용도 있는 만큼 교류협력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오스 루앙프라방주 관계자들

의 전북교육청 방문은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소개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양 지역이 교육과 농업, 문화, 관광 분야에서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지역발전의 기회를 창출하는 취지에서 방문단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북학생수련원, ‘지리산 운해’ 서화 기증식 열려

### 안동선 화백, 지리산의 아름다운 풍경 화폭에 담은 400호 대작 기증

전북학생수련원(원장 박종각)에 최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안동선 화백(임실교 교장)이 수련원에 2년 반 동안 재직하면서 소회를 담은 작품 '지리산 운해'를 완성하여 작품을 설명하고 기증하는 뜻깊은 행사다.

안동선 화백은 전북 진안 출신으로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및 서울대 미술대학에서 서양화, 조소,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미술교육과 교육행정예조에 재학했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섞어서 독특한 화풍을 구성하는데 '지리산 운해'는 구름이 내려앉은 지

리산의 기운 생동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아크릴 물감으로 완성한 400호(520cm\*162cm)의 대작이다.

서화를 기증한 안동선 화백은 "학생수련원에 근무하면서 보았던 지리산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 영원히 남기고 싶었다"며 "입소하는 학생들과 수련원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 그림을 보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고, 학생수련원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1년 개원한 전북학생수련

원(원장 박종각)은 남원시 운봉을 지리산 자락에 위치하여 도내 학생수련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3월 1일자로 원명을 변경하였다.

도내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련교육과 특별 수련교육 과정으로 '학생 자율캠프'와 '중학생 진로캠프', '다문화가족캠프',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소통하는 전북교육아카데미 문 활짝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 심심(深深)한 초대 전북교육아카데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첫 아카데미는 오는 14일 오후 7시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강의로 문을 연다.

최 교수는 '한국 경제의 상황과 주요 과제, 그리고 해법'을 주제로 전북교육공동체와 만난다.

특히 최 교수는 최근 가계소득 동향·고용지표·자영업자 폐업률 등 통계를 앞세운 각종 가짜뉴스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알리는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4월에는 임진모 음악평론가를 초청해 '방탄소년단과 조용필로 보는 대중음악에서의 소통과 혁신의 차이'에 대해 들어본다.

이어 △5월 김주대 시인(뒤집어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기, 사람의 관계) △6월 김준형 교수(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 현황과 전망) △7월 박

현도 교수(중동에서 지금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8월 김삼욱 교수(물리학의 눈으로 본 우주, 세상, 인간)가 강사로 나선다.

또 △9월 김흥기 패션 큐레이터(패션문화사, 패션의 역사를 통해 읽는 인간의 의미) △10월 김영우 PD(역방으로 바라본 가족구조의 미래) △11월 석철진 대표(미래사회와 교육 4.0) △12월 김도인 작가(지혜로운 관계)의 강의를 준비해 있다.

전북교육아카데미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교육청 학부모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rents.jte.go.kr)를 통해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의 기본 방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전달식 교육이 아닌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방식의 아카데미로 꾸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